



국내최초로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산 68-1번지에 영경귀 테마공원을 조성 보라색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 관광 명소로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임실 영경귀테마공원 '인기'

꽃만발 6월 10일까지 무료 개방·발효 효소 담기 체험 제공

국내최초로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산 68-1번지에 영경귀 테마공원을 조성 보라색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 관광 명소로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임실영경귀는 생태계의 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자생 약초로써 임실지역에서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 임실 특산물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 약용식물이다.

현재 임실농가에서는 영경귀 작목반이 구성되어 17만㎡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면적 3만 3,000㎡에 국내 최초로 영경귀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지난 5월 9일부터 개화가 시작된

영경귀 꽃구경은 6월 10일까지 한 달간 영경귀 공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영경귀테마공원 탐방 후 인근에 위치한 임실생약(대표 심재석)에서는 영경귀 꽃과 잎을 활용한 효소담기 체험을 할 수 있고, 효소 만들기 체험 비용 평일 5만원, 주말 6만원에 3인원에 한하여 약 5kg의 발효효소 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경귀는 어혈을 풀어주고 피가 맑아지며 혈액순환,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좋은 약용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에는 농촌진

흥청 인삼특작부에서 영경귀 씨겉질에서 관절염 치료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있고,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 갱년기에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임실 영경귀를 국내 최초로 재배에 성공하고 연구하여온 임실생약에서는 영경귀추출물을 함유하는 혈액순환 개선용 조성물(특허 제10-1352591호)와 영경귀 추출물을 함유하는 간 성상세포 활성화 조성물(특허 제 10-1373120호) 등 2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토피피부염 효과 건강기능성 고추장 '천년의 유산' 개발 관심

순창 발효미생물진흥원,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추출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성 고추장 '천년의 유산'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천년의 유산 고추장은 전통발효식품으로부터 분리된 미생물 중 향산화, 항암 및 항비만, 면역증강 고생산 유산균을 분리하여 그 중 특히 항아토피 피부염에 우수한 효과를 갖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메센테로이드(Lactobacillus mesenteroides) JBCC105686을 사용한 건강기능성 고추장이다. 품질표준화된 설비를 통하여 생산된 전통 고추장으로써 국내산 대두와 국산고추분을 100% 사용 하였다. 또 기존 당시의 페재질의 용기를 유리재질로 변경하여 프리미엄급 제품임을 강조했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아토피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성 고추장 '천년의 유산'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제품 개발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진행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장류 유래기능성 미생물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사업의 추진 결과다. 개발에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순창장류가 참여했다. 특히 천년의 유산은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진행된 2016 순창세계소스박람회 기간에 시제품을 전시해 식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최근 식문화 등의 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이의 면역성 질환을 걱정하는 부모의 눈길을 끌어 향후 대량 생산시 판매 확대에 기대감이 모아졌다.

이번 개발 제품은 (주)순창장류에서 생산에 들어갔으며 본격 판매에 들어간 상황이다./순창=이양원 기자



고창 복분자 가공체험교육 운영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복분자 가공체험교육'을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2013년 '가공체험교육'을 건립한 이후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복분자 가공체험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24일에는 김제시 만경여고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체험교육을 통해 복분자의 생육과정과 특성을 학습하고 복분자를 이용한 쿠키를 만들어보면서 고창

군과 복분자를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소는 교육을 '진로체험교육'과 '가공체험교육'으로 나누어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교육'에서는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복분자 및 베리류의 성분분석 등을 실험 해 볼 수 있으며 '가공체험교육'은 복분자 및 베리류를 이용한 음료, 초콜릿, 쿠키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작가와 작품 현장탐방 '길위의 인문학' 강좌 시작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진행

순창군이 인문학 강좌는 물론 작가와 함께 작품의 현장을 탐방하는 '길위의 인문학' 강좌를 시작한다.

길위의 인문학 강좌는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인문학강좌는 군립도서관에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특히 토요일에 작가와 함께 떠나는 현장탐방이 진행되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구국의 순창정신, 역사의 현장을 더듬다'라는 주제로 순창 출신 노사 기정진 선생의 지행합일(知行合一) 즉 학문과 행함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학문 철학을 배우게 된다.

특히 후학들에게까지 전승되면서 구한말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이어져 온 순창정신을 제조명하고 순창사람으로

서의 새로운 긍지를 갖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진행될 강좌는 ▲노사 기정진의 삶에서 위정척사를 다시 찾다(탐방 순창 조동마을 노사 유희비, 전남장성 고산서원, 노사신도비 등) ▲남명 조식의 민본사상의 힘을 따르다(탐방 경남산청 신안정사, 덕천서원, 한국전비문화원 등) ▲편안 최이현의 나라사랑 숨소리를 다시 듣다(탐방 순창 객사, 정읍 임병찬의병 유적지, 태인 피향정 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한수원(주)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양창호)가 고창지역 연안 해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고창군수와 한수원 양창호 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고창군 연안 바다목장조성과 고품질 양식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수원에서는 2017년 5월까지 4억원의 용역비를 지원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사업 조사, 축제양식장 시험사업 조사 등 연안 해역 3개 분야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용역을 근거로 고창군 해양생태계활성화와 관련사업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국가시행사업 및 운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지역협의체 지원사업 등을 적극 반영해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여성주요사업장 방문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뜻을 모으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먼저 지역을 바로 알기 위해 24일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방문예를 나섰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순창지역 12개 여성단체 임원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여성단체 임원들은 최근 문을 연 옥천골 미술관을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의 성장에 이끌고 있는 건강장수 체험관과 토굴형 저장고, 전통절임류체계화 지원센터 등을 방문했다.

또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순창농특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해 깊이 알고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지역 대표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섬진강향가로포럼평장과 용기체험장을 방문해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날 일정은 마무리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양귀비·대마 단속

남원시보건소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뒷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 그 외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행위 등으로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불수된 양귀비와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경작하는 경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자수 또는 신고해 줄것을 당부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복지협 좋은이웃들 사업 추진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권오준)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관 지원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이웃들'이란 지역사회의 사정을 잘알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낼수 있으며, 사업을 이해하고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며, 협의회 좋은이웃들은 사회복지공무원, 새마을총연합회, 순창군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순창보건진료소,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7개 지회 등 30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환영하며 사회복지협의회(☎070-4350-7382)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